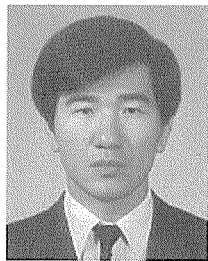


(주) 씨씨엔모아



대표자 경영철학



(주)씨씨엔모아는 2002년 설립된 스마트카드 전문기업으로서 스마트카드 산업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10년 내 스마트카드 업계를 선도할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씨씨엔모아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개발을 밑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정직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젊은 기업으로 성장하며,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책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Human Resource라는 점을 항상 생각한다.



회사 소개

- 대표이사 : 김 정 환
- 설립일자 : 2002. 3. 22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902호
- 전 화 : 02-830-1342
- 팩 스 : 02-830-0488
- 업 종 : 서비스, 도매 / 소프트웨어 개발, 무역
- 주생산품목 :
 - ① Smart Card COS(Chip Operating System) 설계 및 개발
 - ② Smart Card Application System 개발 및 서비스
 - ③ 전자화폐(K-Cash), Java Card 개발
- U R L : www.ccnmore.com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카드의 보안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카드의 확산이 가시화되어 비즈니스의 객관적 성공요인이 갖춰짐으로써 2002년 스마트카드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주)씨씨엔모아는 출범 원년 한국형 전자화폐인 K-Cash를 개발하여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통과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이로써 자체적인 기술로 스마트카드 및 전자화폐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개방형 전자화폐인 티니(Teenii)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전자화폐, 잔액조회기를 개발하였으며, 그 산출물 통한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 해외 NID(National Identification) 카드 사업을 위한 업체들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스마트카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해외 스마트카드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해외 NID 사업을 위시한 IC카드를 이용한 솔루션 수출을 위해 여러 나라와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치과병원용 교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씨씨엔모아가 순수 국내 기술을 통한 치아 교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상반기 기존 개발된 K-Cash를 업그레이드 완료함으로써 한층 성능 및 보안성이 뛰어난 전자화폐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업 비전

2000년 6월 국내 전자화폐가 도입된 이래 꾸준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전자화폐(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는 총 350만매에 달하고 이용건수는 월 1,236만건(일평균 약 40만건)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전자화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분야 이외에도 식당, 편의점, PC방 및 인터넷 쇼핑몰 등 1만원 이하 소액 상거래에 주로 이용되면서 점차 소액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화폐가 일반 및 인터넷 쇼핑몰 대금결제 이외에 교통카드, 신용·직불·현금카드, 보안카드, 의료카드, 신분증, 인증서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과 도심지역의 밀집,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보급 등으로 시스템구축 용이하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 M/S(Magnetic Stripe) 현금카드 위·변조 사고 등의 영향으로 현금카드의 IC카드화가 조기에 실현될 전망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2~3년 내에 전자화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금카드의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정부 및 시중은행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MS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MS기반의 금융카드(현금/직불/신용카드 등)가 2008년까지 IC카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스마트카드 시장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주)씨씨앤모아는

Combi Card 및 Java Card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신·제품개발과 아울러 저가형 K-Cash를 이용한 로열티·멤버십카드의 확산을 통하여 스마트카드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적 전문 기업, 글로벌 경영을 향한 미래 지향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연구개발 현황

(주)씨씨앤모아의 핵심기술 분야인 스마트카드 분야에서는 기존의 MS Card의 단점인 보안성, 데이터 저장용량의 한계 등을 극복한 일반적인 스마트카드의 운용체계(Chip Operating System)을 적용한 카드로 ID, 보안, 건강, 선불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COS(G-COS)를 개발 완료하였다.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범용 전자화폐인 K-Cash 및 이를 응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ISO/IEC7816 및 국내 금융 IC카드 표준을 만족하는 전용 보안카드로 구매거래 수행 시 구매의 정당성 부여와 거래내역 기록, 보존, 정산을 수행하는 P-SAM의 개발 및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금융카드에 도입될 여지가 많은 하드웨어 플랫폼에 독립적인 특성으로 사용자 및 발급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탑재하고 삭제할 수 있는 Java카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스마트카드 발급/키 관리시스템과 정산시스템, 기타 응용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전자화폐 잔액 조회기와 치아교정 시 교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



는 교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Moreceph 솔루션을 개발 완료 하였다.



장단기 투자 계획

여타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IC카드 분야 역시 투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완료된 잔액조회기 제품화 및 양산을 위한 투자가 일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직 시장 주도적인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품화가 되었을 경우 매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현재 개발 완료된 COS를 이용 Masking하여 Chip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 이내 업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통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당면 과제

마케팅 역량을 확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주)씨씨엔모아의 당면과제이다.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진입을 앞두고 있는 제품이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업계 선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아직 마케팅 부분에서는 기존 업체의 조직력 및 노하우를 극복할 수 있는 연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종업체간 적극적인 제휴나 정보 공유를 통한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및 본회에 바라는 상황

스마트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화폐는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편리한 결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전자화폐 확산의 걸림돌이 되었다.

전자화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IC카드의 보급 및 이용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IC카드의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전국적인 단위의 금융 및 유통, 통신 등 인프라의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IC카드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산업진흥회가 그 동안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진흥회가 지금까지 대형 가전산업을 위주로 진흥책을 생산하거나 정보확산에 주력해 온 감이 있으나 앞으로 IC카드를 비롯한 각종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소단박형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

